

# 소니, 삼성전자와 LCD 합작 철수

## 니혼게이지아이, S-LCD 합작해소 협상 ... LCD패널 공급과잉 심화로

일본 소니(Sony)가 삼성전자와 LCD(Liquid Crystal Display) 합작에서 철수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10월30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소니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합작기업인 S-LCD의 지분을 삼성전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합작을 해소하기로 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니는 2004년 삼성전자와 합작으로 LCD패널을 생산하는 S-LCD를 설립했지만 삼성전자가 50%+1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니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조950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확대했으나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LCD패널 가격이 급락하고 TV 판매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삼성과의 합작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S-LCD로부터 LCD패널을 공급받아 TV를 생산하는 것보다 국내외 경쟁기업에서 조달하는 것이 코스트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니는 TV 사업에서 2011년 3월말까지 7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규모가 4500억엔(약 6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말 현재 세계 각국에 두고 있던 9개 거점을 매각과 통폐합을 통해 4개 거점으로 줄이고, 타이완기업에 TV를 위탁 생산하는 등 구조조정을 계속해왔다.

현재 소니의 TV 생산위탁 비율은 50%를 넘고 있으며, 2011회계연도에는 판매 목표를 2% 감소한 2200만대로 설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소니의 철수에 따라 과잉생산 LCD패널의 판매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LCD패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2.4%, LG디스플레이 14.4%, 소니 11.6%, 파나소닉 8.1%, 샤프 7.2%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31>